

동아시아의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일본의 근접한 적들

고이치 이와부치 호주 모나쉬 대학, 모나쉬 아시아연구소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전후 세계 자본주의의 팽창은 아시아 경제와 (상업화된) 문화의 부상을 가져왔다. 반면, 지난 20여 년간 일본사회는 소위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악전고투해왔다. 일본의 미디어 문화가 세계적으로 호응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문화적 힘이 증가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등장과 문화시장의 팽창은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시장의 생산력을 증가시켰고, 특히 한국의 문화시장은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본, 중국, 한국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경쟁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관계는 역사적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갈등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1990년 중반 이후 미디어 문화의 동아시아 지역 내 순환 및 소비의 활성화로 문화적 교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본에서의 증가하는 반중, 반한 감정이 (반한 감정의 증가는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연설을 야기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를 억제하고, 최소한 이것을 압도하게 되는지를 논의한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내의 경쟁관계의 증대가 일본의 상대적인 쇠퇴, 사회경제적인 막연한 좌절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급증과 복잡하게 얽혀서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서 근접한 적에 대한 공격과 추격을 형성해왔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근접한 적, 동아시아의 경쟁관계, 민족주의, 맹목적 애국주의, 혐오연설, 쇠퇴하는 일본의 경제, 디지털 미디어

I. 강화되는 중국 및 한국과의 적대관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는 경제 불황과 더불어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향후 수십년간 노동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경제적 불안감과 반목, 불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빈부격차의 증대, 정규직 감소에 대한 불안감 증가, 사회복지 시스템과 공공연금의 유지에 대한 어두운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차별성 및 우월성의 주장, 즉 일본인 담론(nihonjinron discourse)으로 대변되는 주장들은 사그러들었고(Iwabuchi,

1994), 그 대신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적 담론과 민족의 우수성을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Abe, 2001; Yoda, 2000). 이러한 행동 중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근대사에 대한 자학적인 관점에 대항하고자 역사교과서를 상당 부분 개정하는 것은 가장 두드러진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이라는 우파 수정주의 집단은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좌파 지식인들과 매스미디어에 의해 전파된 자학적인 역사관을 부정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비록 오랫동안 억제되어온 “기억전쟁”의 표현은 다른 나라의 전쟁 이후 시기에도 목격할 수 있었지만(Huyssen, 2003), 일본의 야스쿠미 신사, “위안부”, 난징 대학살과 같은 문제들의 책임에 대한 민족주의적 재평가 작업은 일본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Morris-Suzuki, 2005). 이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작업은 고바야시 요시노리 그룹의 일원이 만든 『전쟁론(Sensouron)』(1998)이라는 만화책이다. 이 만화는 일본이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한 “자학적인” 역사관을 거부하면서, 서양의 제국주의에 맞서 스스로의 가족과 아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죽어간 애국적인 병사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만화책은 대동아전쟁을 불합리하게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역사관과 사이버 우파와 맹목적 애국주의 운동이 증가하게 된 것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이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1세기에 들어 민족주의적 감정은 더욱 확산되었으며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힘이 증대할 때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된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들과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Diaoyu/Senkaku Islands)(중국) 및 독도/다케시마(한국) 영토 분쟁에 대한 일본인의 적대적 태도를 악화시키고 있다. 세 나라의 지도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이러한 이슈들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특히 전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2001~2006)는 지속적으로 야스쿠미 신사를 참배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대중국 관계와 대한국 관계를 더 적대적으로 만들었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반일 시위를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에 더욱 악화되었다.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히기 위해 당시 한국의 이

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이 치솟게 되었다. 2012년 12월에는 일본의 민자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아베 신조 총리의 지도하에 보수정권이 집권했고, 이 정권은 중국과 한국과의 역사 및 영토 분쟁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13년 3월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역시 역사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중국과 한국과의 갈등 심화는 일본에서의 반중, 반한 감정을 더욱 부추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의 악순환이 나타났다. 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반한 및 반중 서적과 잡지들이 출판되고, 주요 서점의 전면에 배치되었으며, 출판사들은 기차, 기차역,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0권이 넘는 한국, 중국,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서적”(heitobon)이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편집자들은 독자들의 우울감을 떨쳐내게 할 수 있는 출판물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이러한 서적들을 출판했다고 고백한다.¹ 또한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해당 기간 동안 일본인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이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²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1년 62%에서 2012년 39%로 감소했다. 중국에서 반일운동과 센카쿠 열도의 소유권에 대한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했다. 2016년 1월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4%의 응답자만이 중국에 친밀감을 느끼고, 33%의 응답자만이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부상으로 국제관계가 악화되면서, 동시에 일본과 대부분의 다른 비서구 국가들의 민족 정체성 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서구의 타자들”(특히 미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제력 쇠퇴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인 부상은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유일한 비서구권의 선진 발전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케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수는 최근

¹ <http://wpb.shueisha.co.jp/2015/07/28/51312/>

² <http://www2.ttcn.ne.jp/honkawa/7900.html>

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과의 국제관계가 악화되었던 최근의 조사 결과에서는 최고 수치인 84%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끈질긴 역사적 분쟁들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경제 발전을 구가할 수 있게 해주었던 미국의 권력 우산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집단적 열망이 표현된 것일 수 있다.

II. 중국의 경제력과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일본에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목격해온 아시아 내의 미디어 문화 네트워크의 발전과 매우 대조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 위에서 언급된 여론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대규모의 반일 운동이 발생했던 2003년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1989년의 천안문 사태로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악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1990년대 내내 중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지리적 인식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나라다. 중국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수수께끼, 경멸, 두려움, 적대감뿐만 아니라 욕구, 욕망, 존경, 동료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다. 이는 전근대 시기 중국의 확고한 지배력과 문화적 영향력, 유럽과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굴복과 저항, 전후의 공산주의의 재기와 자본주의 시장 체제로의 급격한 선회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에 풍부한 역사와 더불어 거대한 영토와 인구 그리고 다양성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문화적 개체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이 아시아 자본주의의 꿈의 세계를 상징하게 된 1990년대 이후 이는 더욱 두드러졌다(Iwabuchi, 2002).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세계의 마지막 금광에서 수익 창출을 꿈꾸는 선진 발전국가의 기업가들에게는 매혹적인 장소다. 미디어 문화의 영역에서도 중국은 최소한 199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 창작자, 관객을 매료시켜왔다. 일본의 음악산업과 연예 중개업체들은 중국 현지에 지사를 차리고 중국인을 고용하면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오디

션을 진행함으로써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의 아이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와 같이 일본의 주도하에 범아시아적인(pan-Asian) 대중문화를 공동으로 양성하려는 노력은 일본의 미디어와 문화산업이 중국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Iwabuchi, 2002).

그러나 1990년대에는 중국시장의 규모와 중국의 문화시장에 진입하고자 과도한 욕구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다. 즉, 일본의 미디어 문화산업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먼 아시아의 이웃과 미디어와 대중문화라는 공동의 기반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순수한 흥미에 의해 움직였다. 동아시아 지역 내의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네트워크는 일본에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근대화된 문화적 이웃을 만나고 이들과 협업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은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근대화되는 사회에서 고통, 모순, 갈등에 관한 중국의 급격한 문화적 표현에 매료되었다. 일본에서는 장이머우(Zhang Yimou)와 추이젠(Cui Jian)과 같은 중국의 예술가와 감독들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 급격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유와 통제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분명한 모순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와 도농격차의 확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부침으로부터 대안적인 문화적 표현과 상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적지 않은 수의 창작자, 비평가, 저널리스트, 학자, 그리고 관객이 일본에서는 더는 추구할 수 없거나 잊혀진 것들을 상상하며, 새로운 문화적 표현의 생산 과정을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다(Iwabuchi, 2002).

이와 같이 사회역사적으로 구체화된 1990년대의 중국에 대한 모든 열망은 실패했거나 최소한 성공적이진 않았다. 이는 일본에는 키메라(Chimera, 불가능한 희망)가 되었다. 중국의 시장 규모의 매력을 제외하면 이러한 열망은 쇠퇴해왔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첫 10년의 새로운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이러한 열망은 대조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한편, 우리는 지역의 미디어 문화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다방향적으로 변화한 것을 목격했다. 상호소비, 공동제작, 공동투자가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도 많은 미디어 문화를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용하고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을 공동생산하면

서 (홍콩과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과)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지역의 문화적 교류 속에 포함되었다. 중국은 또한 새로운 문화노동의 국제분업의 측면에서 초국가적인 미디어 문화에 깊게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Miller et al., 2005).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같은 일본 문화산업에 있어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사슬의 중요한 일부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중국의 미디어 문화 수출은 아직 무시할 만한 정도로 규모가 작다. 한국의 미디어 및 대중문화의 인기를 일컫는 한류(韓流)의 부상이 두드러졌을 때, 화류(華流, Hualiu, Chinese Wave)가 일본에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는 대만과 홍콩의 대중문화이지 중국 본토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왜 중국의 미디어 및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의 관객과 생산자들은 한국과 대만의 미디어 및 대중문화와는 달리 중국의 미디어 및 대중문화가 (단순히 틈 세련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 생산의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진정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권력이 되고, 이것이 일본에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일본의 키메라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주류 담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중국이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는 위협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은 일본의 낮은, 심지어는 마이너스 수준의 경제성장률과는 극적으로 대조적이다. 이는 일본이 누리왔던 최상위의 지위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압도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강력하게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일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뜨거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다. 일본의 매스 미디어는 일부 중국인 시위자들이 일본 대사관과 일본 식당에 달걀을 던지는 폭력적인 장면들, 그리고 일본 축구대표팀이 중국 축구 대표팀이 아닌 다른 나라의 축구 대표팀과 벌이는 경기에서조차 중국 관광객에 의해 조롱받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불안감은 “저작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적 불안감으로 전환된다. 이는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와 질 낮은 문화상품 생산력에 대한 격하이며, 중국 사회의 비문명적이고 불법적인 지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브랜드 제품과 DVD의 불법 복제는 1990년부터 지속되온 오래된 이

슈며, 이는 대부분의 미디어 및 문화 기업들이 중국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의 강압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라는 압력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불법복제 DVD와 CD가 공공연하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일부 제한했지만(특히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결국 불법복제의 문제는 중국 사회의 불공정성과 무질서와 쉽게 연계되었다. 게다가, “모조 문화”를 중국 사회의 많은 측면에까지 일반화하는 현상은 일본의 담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다.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미키 마우스와 도라에몽과 같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의 “저렴한 모조품”들이 있는 중국의 모조 놀이공원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모조가 독창적인 것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기에, 불법복제는 새로운 문화적 상상력과 표현이 개발되는 미디어 및 문화 시장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생산기반(infrastructure)으로 볼 수도 있다.³ 일본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 (심지어 현재도) 미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똑같은 접근을 취했었다. 하지만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사재기 쇼핑을 포함해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함과 교양 없음 그리고 최근의 농수산 화학물질의 오염과 더불어 중국 모조품의 낮은 품질을 조롱하고 중국문화의 천박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중국의 세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격하하는 것이다.⁴ 이것은 아무리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강력해졌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문화적이고 민주적인 면에서는 언제까지나 조잡한 나라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키메라로서 중국을 인식하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³ 최근의 나이지리아 사례에 대한 양질의 분석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Brian Larkin, *Signal and Noise: Media, Infrastructure, and Urban Culture in Niger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⁴ 아마도 다른 어떤 최근의 올림픽 게임도 베이징올림픽보다 부정적인 미디어 보도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다(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항의한 많은 미국 동맹국들 없이 치른 모스크바올림픽을 제외하면). 티베트의 독립, 표현의 자유 억압, 빈부격차, 베이징의 지역주민 강제추방, 식중독의 위험, 개막식에서 드러났다고 주장되는 저렴한 복제품과 모조 문화의 횡행, 미디어 보도에 의한 민족주의의 강력한 표출.

III. 혐한류로부터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연설까지

21세기 들어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힘의 증대는 매우 강력하게 위협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다시 “문화적 야만스러움”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어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문화적 힘의 증대가 일부 일본인에게 일으킨 불쾌감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한류가 일본에 수용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에 의해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민간 수준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교류가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서 한류의 부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2002년 영화 ‘쉬리’의 성공에 이어서 경이로운 ‘겨울연가’의 인기는 2003년과 2004년 일본에서 한류의 붐을 촉발시켰다. 한류는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이해를 촉진시켰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했으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켰다(Twabuchi, 2008). 물론 한국과 역사와 영토 문제가 있었지만, 미디어 문화의 흐름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앞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1995년 월드컵 공동 개최가 결정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고, 2003년과 2004년에 한류가 대중화되면서 더욱 증가했다. 이는 비록 역사 분쟁으로 2005년과 2006년에 감소했지만, 2006년과 2007년 사이(이 시기는 K-pop 스타들이 일본에 진출한 시기) 48%에서 58%로 급격하게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반한 감정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민간 수준의 교류는 활발했지만,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일본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못마땅해하고 16강에서의 탈락을 (한국 국가대표팀은 당시 준결승에 진출) 기뻐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본 일본인들 사이에서 분노를 양산했다. 그리고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두고 긴장관계가 증가하고 있었던 현실은 이러한 분노에 불을 질렀으며, 한류의 부상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또한 2002년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북한과 재일 한국인에게 비난이 쏟아졌던 해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수십 만부가 판

매된 혐한 서적인 『한류 혐오하기(Kenkanryu, Hating Korean Wave)』가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제목은 혐한류에 관한 내용일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 책의 내용은 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책의 주 내용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역사에 대해 분노에 찬 주장과 행동을 하는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 대한 비판을 제일 한국인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가게 함으로써 혐오연설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 책은 반한 감정과 혐한류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이는 다시 일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부상하는 것에 좌절감이 확산되면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의 악화와 결합되어 혐한류 운동의 원동력으로 이어졌다.

2001년 8월에는 일본의 주요 상업 방송국인 후지 TV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는 일본 매스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의 미디어 문화의 유입에 대해 한 남자 배우가 트위터에 부정적 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이 시위 참가자들은 후지 TV에서 지나치게 많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해당 시위가 직접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응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혐한류 시위는 거리에서의 맹목적 애국주의 시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미디어 문화의 순환이 영토 분쟁과 역사적 기억의 측면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부정적 잔재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내에서의 영토 분쟁과 역사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 내의 미디어 문화 순환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 시위는 문화제국주의 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국 문화의 침범에 의한 위협감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다. 이는 시위 참가자들이 일본에 대해 부당하게 공격적이라고 믿고 있는 나라가 생산한 미디어 문화가 일본에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감정에서 추동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상호간 맹목적 애국주의가 악화되는 현상에 대해, 무라카미 하루키는 2012년 9월 28일 아사히신문에 게재한 “국경을 넘나드는 영혼의 길”이라는 기고글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사람들이 민족주의라는 싸구려 알코올에 심하게 취해 있고, 지식인들과 문화평론가들은 지금까지 양성해온 문화교류를 망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⁵ 그럼에도 일본에서 한

⁵ Asahi Shinbun, 28 September 2012.

류의 인기는 크게 감소했다.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거나 한국의 대중가요 가수를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것을 자제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인이 한국의 미디어 문화를 즐기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한국의 대중문화를 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엑소의 한 팬이 일본인의 80% 이상이 중국인이 친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고백했다).⁶ 이러한 추세 속에서, 긍정적이며 자의식적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반한운동이 증가하는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흥미로운 질문이다. 일부는 아마도 이러한 반한운동에 무관심한 채 계속해서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할 것이다. 또 다른 일부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반일운동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한국 대중문화의 소비를 멈추고, 재일 한국인 공동체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에 대항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는 이 지역 사람들의 대중문화 소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져온 문화교류와 상호간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사이버 우익으로부터 혐오연설 시위 참가자까지

동아시아 지역 내의 상호간의 혐오는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많은 일본인을 동원해냈다. 이것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는 재일 한국인과 그들의 공동체 및 학교를 공격하는 혐오연설 시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4월과 2015년 9월 사이에 1,152건의 혐오연설 시위가 있었다.⁷ 이들 시위 참가자들은 일련의 인종주의적 폭언을 내뱉으며 공격적인 태도로 재일 한국인을 기만적으로 특권을 남용하는 (그러나 사실 전혀 존재하지

⁶ <http://mimijuicy.hatenablog.com/entry/2016/09/19/2> (검색일: 2016. 9. 20).

⁷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J3X7WYZJ3XUUPI004.html?rm=483>

않는) 배신자와 도둑으로 폄하했다. 이러한 현상은 증가하는 맹목적 애국주의 감정의 극단적인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행동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적대관계의 증대뿐 아니라, 일본의 사회경제적 곤경, 역사적으로 구성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오래된 배척, 사이버 우익들의 활동을 촉발시킨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보급과 같은 사회역사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일 한국인에 대한 반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와 같은 오래된 사안들을 문제 삼으면서 사회복지와 영주권과 같은 특권을 향유해왔다는 시각에 의해 증폭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은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수정주의와 관련이 깊으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전파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1999년 일본의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니차네루(Ni-Chan'neru, 2 Channel)가 등장하고 이것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른바 네토 우요쿠(netto uyoku)라 불리는 사이버 우익들이 급증했다(Tsuji, 2008; Sakamoto, 2011; Ito, 2015를 참고). 쓰지(Tsuj, 2008)는 2007년 10월 실시한 인터넷 토론의 설문 결과에 기반해, 사이버 우익을 첫째, 반한적이고 반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둘째, 야스쿠니 신사, 일본 헌법 9조의 수정, 일본 학교에서의 애국주의 교육을 추앙하고, 셋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쓰지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남성이 많고, 니차네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좌편향된 매스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매스미디어와 좌파 지식인들의 지적 권위에 대한 강한 반감과 대안적인 “진실”을 찾아내고 전파하려는 열망은 사이버 우익들의 부상에 강력한 동력이 되어왔다. 이러한 열망은 역사 수정주의 운동에 의한 매스미디어와 좌파지식인들의 자학적인 역사관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익명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이것을 훨씬 더 공격적이고, 모욕적이며,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반한적이고 반중적인 감성과 결합되어 21세기 사이버 우익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켰다(Ito, 2015). 2002년 월드컵 시기에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다. 이때 반한 감정은 일본 매스미디어가 일본 대표팀의 성적에 대

한 한국에서의 부정적 반응을 보도하지 않거나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을 때, 이에 대한 명백한 반발로서 표출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반(反) 매스미디어 감정은 일본의 미디어가 한류에 대한 반발을 촉진시키면서 이러한 혐한류 현상의 증대와 결합되었다.

재일 한국인이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특권은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다. 매스미디어와 좌파지식인들의 권위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어버린 거짓들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사이버 우익들이 주장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러한 특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공격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Ito, 2015). 위에서 언급한 만화책 『혐한류』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영향이 컸다. 이 책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에 대한 열광에 반발하고 있다. 일본 식민주의의 역사에 반대하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오류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을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한국인의 전형으로 상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난이 재일 한국인에 대한 비난으로 옮겨가게 하며, 또한 일본 식민주의의 역사에 대한 재일 한국인의 “왜곡된” 주장은 식견 있는 젊은 일본인에 의해 멋지게 폭로된다(Liscutin, 2009). 나아가, 이 책은 재일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비난한다. 물론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지만(Oizumi et al., 2015), 그렇다고 이것에 의해 재일 한국인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 이 책은 오히려 혐오연설 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사이버 우익 민족주의(netto uyoku nationalism)는 사이버 공간 내에 한정되지 않았다. 반중적이고 반한적인 감정이 고조되면서, 인터넷 사이트는 우익들을 거리 시위로 동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해온 것이다. 자이토쿠카이(Citizen's League against Special Privilege of Koreans in Japan, Zaitokukai, 在特会)⁸와 같은 활동주의 보수파(Activist Conservatives, Kōdō suru

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 또는 단순히 약칭 재특회(在特会 자이토쿠카이)는 2007년 1월 20일에 발족한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시민단체이다. 재일특권이란 특히 ‘특별 영주 자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1991년 일본에서 시행된 ‘입관특례법’을 근거로 구 일본 국민이었던 한국인과 조건인 등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자이토쿠카이는 이 ‘입관특례법’을 폐지하고 재일 한국인을 다른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hoshu)들은 사이버 우익들에게 자신들의 조직에 가입하고 좌파 지식인, 매스미디어, 그리고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재일 외국인에 반대하는 탄원과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자이토쿠카이는 제1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2007년 초에 설립되었다. 이들의 공격대상에는 일본에 비합리적인 사회적 혜택을 요구하는 이민자와 외국인들도 포함되지만, 조직의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은 자이니치(在日, 식민주의 시기 한국인의 후손)가 가진 특혜를 철폐하는 것에 있다. 이들은 일본 전역에서 재일 한국인 공동체와 학교에 대한 시위를 조직했다. 예를 들어, 2009년과 2010년에 자이토쿠카이는 교토에 있는 한국인 초등학교의 시설을 파괴하고 이 학교의 학생들을 ‘바퀴벌레’와 ‘첩자’로 격하했다(Fackler, 2010). 2012년부터 자이토쿠카이와 다른 조직들은 반한 시위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이러한 시위에서 이들은 “좋은 한국인이든 나쁜 한국인이든, 한국인은 모두 죽여 버려라(Good or Bad Koreans: Kill Them All)”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예를 들어 Ishibashi, 2013; Johnston, 2013). 2013년에는 일본 전역에서 300건이 넘는 반한 시위가 조직되었다.

자이토쿠카이로 대변되는 혐오연설 운동을 양산한 사이버 우익의 확대는 사람들을 수동적인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주체로 전환시키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디지털 미디어는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목소리가 사회 안에서 표현되고 공유되는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시스템의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민주화하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열어놓은 잠재력이 항상 진보적인 것은 아니며, 한국과 중국에 반발하는 최근의 호전적 애국주의의 부상과 재일 한국인에 대한 끔찍한 “혐오연설” 시위가 보여주듯이 이는 퇴행적이고 심지어는 인종주의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혐오연설 운동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식민지에 어떠한 잘못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위안부”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간주하는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를 숨겨진 “역사적 진실”로 믿는다. 인터넷

있다(편집자 주).

에 대한 접근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동료들을 찾아내게 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집단을 확대시킨다. 그들은 그저 무엇인가를 읽고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특정한 종류의 역사적 관점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다른 관점들에 귀 기울이거나 함께 토론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스테인(Sunstein, 2001)이 반향실(echo chamber)과 집단 양극화(group polarization)라고 부른 것을 상기시킨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타인과의 정보와 의견의 공유를 촉진시키지만,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 비슷한 관점을 친밀한 집단들 사이로 한정해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의견 교환이 없는 양극화된 진영의 형성으로 이어진다(Sunstein, 2001).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을 탐험하는 것이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서핑(surfing)’에서 목적지향적인 탐색으로 되면서” 더욱 강화되어온 것이다(Zuckermann, 2013: 94). 사이버 우익과 혐오연설 운동의 부상은 어떻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사람들을 “정보의 보호막 속에 살도록”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혐오연설 운동은 또한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거리로 동원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이토쿠카이는 잠재적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 거리에서 그들의 활동을 담은 비디오를 전파시키는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교묘하게 활용한다.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유사한 가치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연결할 뿐만 아니라, 결국 사이버 공간을 넘어선 거리에서의 실제 만남과 집단 행동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위에서 언급한 쓰지(Tsuji, 2008)의 발견에서처럼, 사이버 우익들이 온라인 토론과 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는 거리 시위가 더욱 강력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거리에서의 집단 시위는 그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더욱 강화시킨다(Yasuda, 2012).

V. 근접한 적에 대한 사냥

거리 시위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당장의 공격대상으로서 근접한 적이 필

요할 수 있다.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재일한국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옮겨간 것 역시 일본의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들과 “모국” 사이의 명백한 동일시가 인종주의적 공격을 야기하면서, 이민자와 디아스포라는 오랜 기간 맹목적 애국주의의 역전된(inverted) 공격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특히 무슬림에 대한 유럽과 미국에서의 반복적인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일본식의 맹목적 애국주의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나 이민자 또는 극단주의 집단들이 야기한 것으로 가정되는 테러 공격에 의해 직접적으로 추동된 것이 아니다. 히구치(Higuchi, 2014)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일본과 이웃 나라들 사이의 불완전한 관계(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기반하는 것이다. 재일한국인들이 일본 국적과 시민권을 빼앗겼던 1952년 이후, 일본에서 그들의 지위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으며 그들은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차별로 고통받아왔다. 히구치는 재일한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에 소속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과 관련된 사안들을 국내 문제가 아닌 한국(남한) 및 북한과 국제관계의 문제로 다루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연설 운동에 누가 참여하고 무엇이 그것을 추동하는지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연설 운동은 (혐오연설 운동의 주도자들에 따르면) 부당하게 사회적 특혜를 주장하고 향유하는 문화적 타자에 대한 집착적인 공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이토쿠카이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지지자와 회원들을 이끌어냈던 최초의 주요한 혐오연설 시위는 2009년에 일어났다. 이 시위는 불법 장기 채류로 일본에서 추방된 한 필리핀 남성의 가족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으며,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해당 가족의 딸은 법적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는 주류 일본인이 쇠퇴하는 일본의 경제와 고용복지 시스템의 몰락하에서 확산된 희생양 만들기(victimization)의 감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들 스스로 민족국가(nation-state)와 동일시하여 자부심을 되찾고 근접한 적을 공격하도록 추동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마루야마 마사오(Maruyama, 1964)가 전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억압 감정의 아래로의 전이라고 표현했던 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억압의 세력이 국

가위계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자본주의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의 원인과 효과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장에 의해 주도된 불균등하게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고용,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만들고, 세계 도처에서 이민자와 외국인에 반대하는 맹목적 애국주의 운동의 증가를 야기한다. 특히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복지 혜택을 주장하는 세력들인데, 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복지 혜택을 즐기지는 못하면서 가혹한 현실에 인내를 강요 받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애국주의 운동의 참가자들은 그들이 이미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세력들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한다(Yasuda, 2012; Kitahara and Paku, 2014). 그렇다면 혐오연설 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좌절감을 느끼고, 그들을 좌절하게 하는 반역자들을 인민재판에 넘김으로써 안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Yasuda, 2012).

사이버 우익과 혐오연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고 정규직을 가지지 못한 미혼 남성들인 경향이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왔지만, 참여자들이 반드시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적지 않은 수의 다양한 연령층의 미혼, 기혼의 여성들이 여러 여성 단체에 의해 조직된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항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주장이 그들의 조부모와 조국에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Kitahara and Paku, 2014).⁹ 중산층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부유한 엘리트들 역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Higuchi, 2014). 이는 근접한 적을 찾는 일은 다음과 같은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일본에서 사이버 우익과 혐오연설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의 침투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는 어두운 에너지를 속에 풀어놓고 고도로 공격적인 방식의 집단 시위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이것을 지지하는 기쁨을 표출하는 것을

⁹ 한 사람의 조부와 증조부의 무지와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진실된 현신은 일본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정당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내러티브이다(The Eternal Zero, 2013).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경 내에서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공격할 사람들을 찾는 “내향적인 맹목적 애국주의”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내향적인 맹목적 애국주의의 근접한 적들은 재일한국인 그리고 일본 내의 외국인 및 이민자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내향적인 맹목적 애국주의의 공격 대상은 이민자와 난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누인과 오키나와인, 장애인, 히로시마 원전 피해자, 심지어는 원자력 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후쿠시마 사람들을 포함한다. 야스다(Yasuda, 2015)가 주장하듯이, 혐오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격할 누군가를 찾고 있다. 소외된 지위를 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의 사회복지를 부당하게 주장하는 모두가 이러한 내향적인 맹목적 애국주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역자에 대한 증오는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애정과 분리되어서 유희적 사냥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VI. 혐오의 문화를 넘어서

반중, 반한, 그리고 혐오연설 운동은 일본을 폄하하고 일본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조직된다. 그러나 근접한 적들에 대하여 맹목적 애국주의적 공격과 이들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 민족주의적 감정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아마자키는 이러한 운동을 “이상한 민족주의(strange nationalism)”라고 지칭한다. 일본에 대한 “반역자”들을 (매스미디어와 좌파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들과 같은)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반중, 반한, 혐오연설 운동들은 사실 국익이나 국가통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의 활동은 일본에서 인종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는 식으로 일본의 국제적 명성에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아마자키가 주장하듯이, 민족주의는 보편주의적이면서 특수주의적일 수도 있고,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배타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러한 운동들은 배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가의 통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 주도적인 경제 민족주의가 동력을 상실하고 한 민족 내에 사회적 모순, 분열, 다

양화가 전면에 나타나게 되면서, 근접한 적들에 대한 사냥은 상상된 민족공동체를 긴밀하게 하는 내러티브의 약화와 함께 나타난 것이다. 아무리 이러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민족의 이익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일본에 피해를 주고 일본을 비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적들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에 있는 듯하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혐오연설 운동이 일본의 국제적 명성을 파괴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늦었지만 이러한 사냥에 제한을 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연설 운동은 분명하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집권 중인 두 정당이 혐오연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의 맥락에서는 중대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맹목적 애국주의와 이것의 역전된 투사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좌절과 불안, 그리고 반역자에 대한 사냥이 주는 만족감에 의해 깊은 곳으로부터 추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만으로는 이것들을 없애기에 충분치 않다. 사실 자이토쿠카이의 전임 회장은 2016년 8월 도쿄 시 정부(Tokyo Metropolitan Government)의 시장으로 출마했고, 선거연설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의 입법은 어떠한 예방적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게다가 혐오연설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위와 같은 입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다.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는 일본의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유엔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벌 규정을 포함한 반인종주의 법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다문화적 환경과 이민에 대처할 어떠한 정책적 조치도 입안하기를 꺼리는 일본 정부의 태도다(Iwabuchi, 2015). 따라서,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비개입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 감정의 표현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반(反) 혐오연설 입법에 있어 적극적인 반 혐오연설 연대가 그 동력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그 진정한 동기와 목표가 무엇이건 간에 혐오연설 운동이 얼마나 재일한국인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 혐오연설 운동은 일본의 인종적 다양성 문제를, 일

본의 침체되는 경제의 재생을 위해 필요한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논의를 넘어, 진보적이고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 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혐오연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항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가 반 혐오연설법을 입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혐오연설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많은 출판물이 발간되었으며, 인터넷에는 혐오연설 시위를 비난하는 많은 사이트와 목소리들이 있다. 혐오연설에 대항하는 연대의 형성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개설되었다(예를 들어 노리코에넷, norikoenet). 그리고 혐오연설 운동이 지속되면서 최근 몇몇의 매스미디어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태도로 보도하고 있다. 법원도 혐오연설 행위에 엄격한 판결을 내렸고 자이토쿠카이에게 이들이 입힌 피해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결과적으로, 혐오연설 운동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재일 한국인과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사카와 가와사키와 같은 몇몇 지방 정부는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다문화 공생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반 혐오연설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정치적·역사적으로 형성된 국제관계가 문화교류를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단정해 공격하는 폭력적인 세계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불확실성과 박탈감에서 야기되었을 수 있지만, 세계 자본주의는 또한 새로운 종류의 문화적 표현과 매개된 지역적 교류를 양산하기도 했다(Iwabuchi, 2002). 어떻게 기존의 국경 간의 대화가 헛되고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전면에 나타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동아시아로의 침투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긍정적인 결과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세계 자본주의를 내파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근본적으로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용인하지 않는 관점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혐오와 분노의 문화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인터넷 트롤링(인터넷에서 해커, 악플러, 키보드 워리어 등에 의한 고의적인 파괴적 행동)이 어떻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지 논의되었

다(Stein, 2016). 일본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시위와 트롤링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근접한 적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감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소극적인 트롤러들이다. 자이토쿠카이에 의해 조직된 혐오연설 공격에 관한 야스다의 인터뷰(Yasuda, 2012)에서는, 한 재일외국인은 자신과 자이토쿠카이가 모두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자이토쿠카이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지만, 스스로에게 더욱 위협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일본의 혐오연설 운동을 지지하면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묵적으로 그러한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두렵다.”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혐오연설 운동에 참여하거나 인터넷에서 의견을 남기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이러한 운동에 관련된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고 이러한 운동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 “좋아요”를 클릭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이들은 혐오서적을 읽고 설문조사에서 혐오연설의 관점을 내놓을 수 있다).¹⁰ 이러한 행동은 일본에서 다양한 종류의 혐오와 분노(중국과 한국, 한류, 일본 내의 외국인, 매스 미디어와 좌파 지식인, 재일한국인, 그리고 희생자 시늉을 하고 불공정하게 사회적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를 양산해낸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인터넷 트롤링과 공범인 것이다. 일본은 더 많은 이주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고,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될 것이라는 점에서 혐오의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절감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초점을 호감과 혐오의 표현에서 경청과 대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중대한 과제다.

투고일: 2016년 11월 28일 | 심사일: 2017년 1월 4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월 31일

¹⁰ 그리고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하는 사람들은 자이토쿠카이의 회장이 위의 2016년 8월 선거에서 110,000표를 받은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숫자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be, Kiyoshi. 2001. *Samayoeru Nashonarizumu* (Wandering Nationalism). Tokyo: Sekai Shisoshsha.
- Fackler, Martin. 2010. New Dissent in Japn Is Loudly Anti-Foreign. *New York Times*, August 28. Last accessed on 10 Sptember 2016. http://www.nytimes.com/2010/08/29/world/asia/29japan.html?pagewanted=all&_r=0
- Furuya, Tsunehira. 2013. *Netto uyokuno Gyakusbu* (Cyber right-wingers' counterattack). Tokyo: Souwasha.
- Higuchi, Naoto. 2014. *Nibongata Haigaisbugi: Zaitokukai, Gaikokujin Sanseiken, Higashi Asia Chiseigaku* (Japanese Style of Jingoism: Zaitokukai, Foreigners' Voting Right, East Asian Geopolitics). Nagoya: Nagoya Daigaku Shupankyoku.
- Huyssen, Andreas. 2003. *Present Pasts: Urban Palimpsests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Ishibashi, Hideaki. 2013. "Kusaimono wo kihi shiteiruidani shaka no kouseisa wa sokonawareteitta" (Failure to Do Social Justice has been Put a Lid on a Troublesome Problem). *Journalism* 282, 92-99.
- Ito, Masaaki. 2015. "Nettuyoku towa nanika" (What is Cyber Right-winger?). pp. 29-68 in N. Yamazaki ed. *Kimyou na nashonarizumu: Haigaisbugi ni koushite* (Strange Nationalism: Against Jingoism). Tokyo: Iwanami Shoten.
- Iwabuchi, Koichi. 1994. "Complicit Exoticism: Japan and Its Other." *Continuum* 8 (2): 49-82.
- Iwabuchi, Koichi. 2002. *Recentering Globalization: Popular culture and Japanese transnationalism,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 Iwabuchi, Koichi. 2008. "When the Korean Wave meets resident Koreans in Japan: Intersection of the Transnational, the Postcolonial and the Multicultural." pp. 243-264 in Chua Beng Huat and Koichi Iwabuchi ed. *East Asian Pop Culture: Approaching the Korean Wave*.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Iwabuchi, Koichi. 2015. "Cultural Citizenship and Prospects for Japan as a

- Multicultural Nation.” pp. 239-253 in Yasemin Soysal ed. *Making and Transnational Trajectories: Nation, Citizenship, and Region in East Asia*. London: Routledge.
- Johnston, Eric. 2013. “Politicians Silent on Curbing Hate Speech.” *Japan Times*, July 10. Last accessed on 10 September 2016. <http://www.japantimes.co.jp/news/2013/07/10/national/politicians-silent-on-curbing-hate-speech/#.V9PHayPhDu0>.
- Kaigo, Muneo. 2013. “Internet Aggregators Constructing the Political Right Wing in Japan.” *JeDEM* 5 (1), 59-79.
- Kitahara, Minori and Suni Paku. 2014. *Okusama wa aikoku*. Tokyo: Kawadeshoboushinsha.
- Kobayashi, Yoshinori, 1998. *Sensouron* (On War). Tokyo: Togensha.
- Liscutin, Nicola. 2009. “Surfing the Neo-Nationalist Wave: A Case Study of Manga Kenkanryu.” pp. 171-193 in C. Berry, J. D. Mackintosh, and N. Liscutin ed. *Cultural Studies and Cultural Industries in Northeast Asia: What a Difference a Region Make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Maruyama, Masao. 1964. *Gendai-seiji no sbiso to kodo* (Thoughts and Actions Behavior in Contemporary Politics). Tokyo: Miraisha.
- Miller, Toby, Nitin Govil, John McMurria, Richard Maxwell, and Ting Wang. 2005. *Global Hollywood 2*.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 Morris-Suzuki, Tessa. 2005. *The Past within Us: Media, Memory, History*. London: Verso.
- Oizumi, Mitsunari, Kimura Motohiko, Kato Naoki, Kajita Yosuke. 2015. *Saraba heitobon! Kenkan hanchu bon bumu no uragawa* (Goo-bye Hate-Books! Debunking the Boom of Hate-Korea and Anti-China Publications). Tokyo: Korokara.
- Sakamoto, Rumi. 2011. “Koreans, Go Home!’ Internet Nationalism in Contemporary Japan as a Digitally Mediated Subculture.” *The Asia-Pacific Journal* 10(2). <http://apjif.org/2011/9/10/Rumi-SAKAMOTO/3497/article.html>
- Stein, Joel. “Tyranny of the mob.” *Time*, 29 August 2016, 26-32.
- Sunstein, Cass R. 2001. *Republic.co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nstein, Cass R. 2006. *Infotopia: How Many Minds Produce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suji, Daisuke. 2008. *Intanetto ni okeru "ukeika" gennsboni kannsuru jissbokenkyuchousakekka gaiyo boukokusbo* (A report and summary on an empirical study on the right wing tendencies in the Internet), 10 September 2008. Last accessed on 10 September 2016. <http://www.d-tsuji.com/paper/r04/report04.pdf>
- Yamazaki, Nozomu. 2015. "Kinyou na nashonarizumu?" (Strange nationalism?). pp. 1-28 in N. Yamazaki ed. *Kimyou na nashonarizumu: Haigaishugi ni kousbite* (Strange nationalism: Against jingoism). Tokyo: Iwanami Shoten.
- Yasuda, Koichi. 2012. *Netto to Aikoku: Zaitokukai no Yami wo Oikakete* (Internet and Patriotism: Exploring the Dark Side of Zaitokukai). Tokyo: Kodansha.
- Yasuda, Koichi. 2015 "Dokomademo hirogaru tekintei" (Endless Expansion of Enemy Hunt). *AERA* 28 (34), 34-35.
- Yoda, Tomiko. 2000. "A Roadmap to Millennial Japan." *South Atlantic Quarterly* 99 (4), 629-668.
- Zuckermann, Ethan. 2013. *Digital Cosmopolitans: Why We Think the Internet Connects Us, Why It Doesn't and How to Rewire It*. New York: W.W. Norton.

Abstract

East Asian Rivalry, Digital Media and Proximate Enemies in Japan

Koichi Iwabuchi Monash Asia Institute, Monash University

The substantial expansion of global capitalism in the post-Cold War context has accompanied the ascent of Asian economies and (commercialized) cultures as mostly exemplified by China and South Korea. In contrast, Japan's experience has been marked by struggles with economic slump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alled bubble economy. Nonetheless, Japan's cultural power has been growing as Japanese media culture has been received favorably internationally. However, the advent of capitalism and the expansion of cultural markets have enhanced the production capacity of other Asian countries as well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have even surpassed those of Japan. Accordingly, we have observed the intensification of economic and cultural rivalry between Japan, China and South Korea and the rise of inter-Asian antagonism and the "othering," joined by political contestation over historical issues.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rise of anti-Chinese and Korean sentiments in Japan, which also generates hate-speech movements against resident Koreans, overwhelm, if not suppress, East Asian cultural exchange. This is considered within the social context of regional circulation and consumption of media cultures which has considerably advanced East Asian cultural exchange since mid-1990s. It will be argued that growing East Asian rivalry with the relative decline of Japan, the vague sense of socio-economic

frustration, and the upsurge of digital media communication have been complicatedly conjoined to engender the attacks and search for proximate enemies as the object of animosity.

Keywords | Proximate enemies, East Asian rivalry, nationalism, jingoism, hate speech, Japan's shrinking economy, digital media

